

말씀 (여호수아 14:6-15)

오늘 우리가 말씀은 “말씀”이다. 본문을 보면 갈렙이 가장 어려운 곳, 아낙산지를 정복하는 내용이다. 본문을 잘 보면, 그때 갈렙이 자기의 개인 믿음으로 아낙산지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갈렙이 대단한 믿음으로 앞장서서 일한 일꾼이었지만 말씀이 아낙산지를 정복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원인들을 가만히 보면 다 과거이다. 과거의 어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늘의 결과가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잘못된 선택, 문제를 지금 우리가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나간 시간을 뒤짚을 수가 없는 것이다.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고, 되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해 볼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오늘을 우리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정말 정확히 보면 오늘 하고 있는 일도 바른지, 잘된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 그러니 계속 시행착오가 생기고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다. 미래는 어떠한가? 이것은 더 모른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사실 인간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답을 줬는데, 그게 복음이다. 절대 손대지 못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런 답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언뜻 생각에 오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손을 못 댈다. 그런데 미래도 많은 소망,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모른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답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가지에 대한 답이다. 지나간 것도 능히 역전시켜서 오히려 잘못된 것, 큰 일의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과거를 원망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본 것이다.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뒤집어 저서 축복이 되는 사건을 겪으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것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서도 사실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오늘 현재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색깔을 칠하려면 까만색일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거기에 대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답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살아야 한다. 이 답이 근본 원인 세가지를 제거하고 뒤집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뒤집은 것이다. 과거의 문제를 발판으로 만들면 뒤집은 거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오늘을 응답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바꾸면 뒤집은 거 아닌가? 미래에 대해서도 답이 있다면 뒤집은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것을 확인하고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더라도 이것으로 사는 것이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RUTC뉴스에 중국 렘넌트 간증을 들었을 것이다. 자기는 건축과를 전공하는데 성전건축이 자기의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지금 대학원 안된다고 떨어진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잡은 말씀이 시편 127:1,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되든 안되든 관계 없이 나는 이것 하겠다고 고백했다. 내 생각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이 들어왔다. 이 사람에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향하여 살고 그 말씀 대로 사는 것이다. 순간 순간 어려움이 온다. 그 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새로이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다. 45년전에 받았는데, 광야를 가면서 늘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 간다.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지금도 성취하고 있지 않나? 지금도 우리는 가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했으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가고 있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들어왔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왔잖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버렸다.

1. 말씀

오늘 본문은 갈렙의 위대한 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밤새도록 울었다. 우리는 못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 날 저녁에 갈렙이 모세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10명 정탐꾼은 백성들의 간담을 녹였지만 두 사람은 바르게 보고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다. 하나님 우리는 못 간다고 밤새도록 울었다. 참 놀라운 역사이다. 그 와중에 모세가 갈렙에게 한 말이다. 9절에 보면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갈렙이 밟는 땅은 다 갈렙과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갈렙은 그 때 아낙 산지를 정탐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 받은 말씀이다. 정말로 갈렙이 참 놀랍고도 대단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6절 중간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한 것을 당신이 안다고 말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 때 들었잖아. 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달라는 것이었다. 자기는 잡은 말씀이 있으니까. 아낙산지는 전부 겁을 낸다. 사람이 크고 철병거가 있었다. 그런데 갈렙은 그걸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갈렙은 모세를 가까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러면 아무리 모세라도 인간적인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은 4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놀랍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다. 잘 안다. 모세를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다가 문둥병 걸렸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모세가 동생으로 보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메시지는 너의 동생이 아니라 내 종이라는 것이다. 니가 동생으로 보면 안된다는 메시지이다. 간혹 보면 목사가 조금 잘못하면 시험들어서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다. 실수다. 목사는 목사고 자기는 자기이다. 목사를 가까이서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 큰 일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강단을 잡고 사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몇 명분들은 한번씩 전화온다. 다음 주 본문이 뭐냐며 전화온다.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도 있겠지만 그 제목이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때 그 말씀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 생각인데, 그런 분들은 목사와 상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응답 받는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 말씀을 잡고 환경을 안 보는 것이다. 사람이 그 때는 칼 가지고 찔러서 전장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은 전쟁의 굉장한 요소이다. 전쟁을 총쏘며 하면 키 큰 것은 불리한 점이다. 갈렙은 언약을 잡은 말씀을 잡은 사람이다.

지난 금요일 중직자대회 1강을 들었다. 그 때 찬양에도 나왔다. 말씀대로 되리라.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너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라는 것이다.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찬양인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신다. 맞는가? 그냥 말씀대로만 하는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아무도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할수 있는가? 먼저 말씀을 하고 말씀마다 다 성취가 된다. 누가 이것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언된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아야 한다.

갈렙에 대해서 또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낙 산지를 정복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 아니었다. 이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딱 믿고 가야 한다. 성경에는 이 말씀에는 근본 흐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근본메세지, 메인 메시지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시작해서 3장 21 언약의 피제사, 그것이 아벨의 제사로 연결되고, 이 언약의 피가 노아에 가서 노아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은 단의 사람, 이것이 출애굽하는 그날 어린양의 그 피다. 이 말씀이 계속 내려가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기드온, 엘리야, 히스기야, 이렇게 연결되어서 포로시대 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된다.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이것이 주제이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과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일어날일들이 예언되어 있다. 이 언약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24를 주신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망대가 되게 하신다. 237 치유 서밋 일어나게 하신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메인이니까. 이 성경의 주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근본적으로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갈렙은 당연히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 중대한 말씀이 갈렙에게는 인생메세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잡고 힘을 얻고 기도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매주 말씀을 맞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인생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본래 만들어 졌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내게는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뭐가? 이 성경이 내게는 뭐가? 강단이 내게는 뭐가? 매주 나는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은혜 받는 것도 귀중하다. 그래야 힘을 얻는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된다.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되어야 한다.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게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중대한 내용이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하였다. 갈렙이 아낙 산지를 정복하고 나서 전쟁 끝났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 말씀을 성취하고 전쟁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 이런 인생 되기 바란다.

2. 충성

8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내게 이 말씀을 주었다는 뜻이다. 니가 밟은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의 기업이 될것이라고 하였다. 갈렙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백이다.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내가 받는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힘을 수 있다. 필요 없다. 충성해야 한다. 그것이 힘든 것을 치료하고 뒤집는 방법이다. 인생 전체를 드리고 올인을 해야 한다. 그게 최고로 응답 받는 길이다. 이것을 안하고 응답을 주시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싹 다 아신다. 머리 털 세고 계신다고 하지 않는가? 광야에서 만나 거둘 때 욕심나는 사람은 두배로 걷었는데, 집에 가보면 반으로 줄어버렸다. 하나님은 이백만명 나갔는데 누가 두배로 거두었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다. 다 알고 계시다. 대를 이어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란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누리야 한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것으로 정복해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이미 다 나와 있다. 부활메세지 4개,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충성하고 여기에 완전 종이 되는 것이다. 뺏속까지 종이 되었다면 그건 끝난 것이다. 완전 중, 완전 증인 되어야 한다. 위하여 완전 기도 있어야 하고 완전 치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뭘 하는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의 사람인가,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마음을 바치면 몸도 바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더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를 볼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마음을 드릴수 있어야 한다. 마음보다도 몸을 먼저 드리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다. 귀한 일이다. 그러나 마음부터 드려야 한다. 마음대로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막는 일이다. 전쟁 붙어야 한다. 내 맘이 하나님께 드러져서 완전히 통해야 정상이다. 내 맘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인간의 병은 이거 하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조금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 하면 말씀은 뭐냐는 것이다. 그게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하고 마음을 드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갈등이 사라지면 육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육신적 갈등의 1번이 무엇인가? 기도응답이 잘 안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이 육신적 갈등의 1번이다. 그거 없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완전 종이 되면 없어져버린다. 이것이 성경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대표적으로 뽑아서 그게 렘넌트 7명이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살리고 남미 살리고, 위하여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회이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언약은 크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더 큰 교회로 보일 것이다. 20주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의 소원으로 담기기 바란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해결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내게도 갈렙처럼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향하여서 오늘 뉴스에 나온 렘넌트처럼, 사람들이 대학원 못 간다고 말해도 상관 없이 나는 언약이야, 분명히 성취될것야, 혼자서 말씀 붙잡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